KOSDAQ SMALL-CAP RESEARCH

에스와이스틸텍 365330 · 건설자재·철강

혼재

건물 바닥을 만들 때 쓰는 철판 구조재(데크플레이트)와 층간소음 차음재를 만들어 건설사에 공급하는 회사.

2026년 11월 19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2위(217.3억), 당일 +18.5% 급등. 최근 삼성물산 94억·더현대광주 129억 공급계약 공시가 이어졌고, 데이터센터 수주 기대 테마가 붙으며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6.1배로 폭증했다.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848억	1,690원	+18.51%	217억	적자	1.00배	68.77%	123.32%

쉬운 요약

건물 바닥용 철판 구조재(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로, 2026년 들어 대형 건설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더현대광주 129억, 11월 삼성물산 서소문빌딩 94억 계약을 따냈고, 2분기 매출은 376억으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같은 2분기에 영업손실 27억·순손실 32억**이 났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적자가 커졌다는 것은 원가가 매출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뜻이라, 수주가 곧 이익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주가는 올해 2월 4,635원까지 올랐다가 7월 1,110원까지 약 76% 추락했고, 11월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수주 기대 테마로 다시 1,6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산 대비로는 PBR 1.00배 수준입니다.

'수주는 늘었다'는 근거는 분명하지만, 돈을 버는 회사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투자 포인트

1. 2026년 7월 더현대광주 129억, 11월 삼성물산 서소문빌딩 94억 등 대형 수주가 이어지며 2026년 2분기 매출 376억으로 분기 최대치 기록
2.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용 자재 공급 기대라는 테마 순풍 — 당일 거래대금 217.3억으로 20일 평균(34억)의 약 6.4배
3. PBR 1.00배·부채비율 68.77%로 자산 대비 저평가와 비교적 낮은 재무 부담이 하방을 받쳐 줌

핵심 리스크

1. 2026년 2분기 영업손실 27억·순손실 32억 — 매출이 376억으로 늘었는데도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돼 원가·마진 구조에 문제가 있음
2. 52주 최고 4,635원(2월) → 최저 1,110원(7월) 약 -76% 급락 이력. 지금의 상승도 테마 수급 성격이 강하고 1년 수익률은 여전히 -46.3%
3. 보도에 따르면 모회사 에스와이 등이 보유 지분 담보 비율을 26.76%로 확대 — 그룹 차원의 자금 압박 가능성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 1 / 10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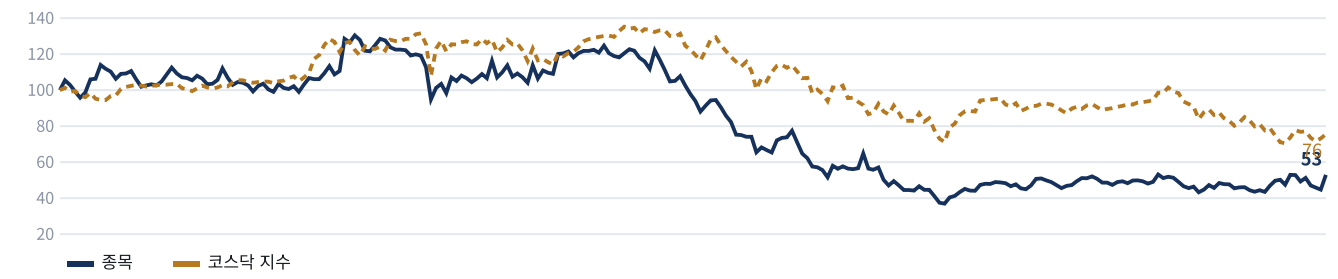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1,573원	+7.4%	-1.7%	+9.1%
1개월 전	1,458원	+15.9%	-12.4%	+28.3%
3개월 전	1,522원	+11.0%	-	-
1년 전	3,145원	-46.3%	-21.4%	-24.9%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12,801,056주	217.3억	9.7x
5일 평균	3,180,636주	53.0억	2.4x
20일 평균	2,108,013주	34.0억	1.6x
60일 평균	1,001,036주	16.1억	0.8x
1년 평균	1,317,976주	40.1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9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 수익률 -46.3%는 이 종목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년 전 3,145원에서 지금 1,690원까지 내려왔고, 그 사이 2월 4,635원을 찍고 7월 1,11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63.5%, 저점 대비 +52.3%. 이 종목의 1년은

'회복'이 아니라 **테마 급등 → 붕괴 → 재반등**의 전형적인 세 구간입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7일이나 됩니다.

② **지금의 거래량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의 크기입니다.** 당일 거래량 1,280만 주는 20일 평균의 6.1배, 250일 평균(약 132만 주)의 거의 10배입니다. 당일 거래대금 217.3억은 시가총액 848억의 약 4분의 1이 하루에 손바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전율은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가 주도하는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당일 +18.5% 급등이 이번 반등의 정점 신호일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은 반등 구간에서도 미미합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현재 3.31%로 한 달 전 4.52%보다 줄었고 1년 전 4.07%보다도 낮습니다. 주가가 1개월 +15.9%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는 뜻으로, 이번 상승의 주체가 개인·단기 자금이라는 방증입니다. 외국인이 반등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승 지속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④ **시장과 비교하면 강하지만, 이유는 '테마'입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 -12.4% 대비 종목 +15.9%로 약 28%p 초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상승 재료는 삼성물산 94억 수주 공시와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수주 기대감이며, 보도에 따르면 7월 7일 모회사 에스와이 상한가에 동반 급등한 이력도 있습니다. 개별 실적이 아니라 테마와 모회사 수급이 끌어올린 가격은 그 테마가 식으면 같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회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건설 공급 테마가 뜨거워서' 형성된 가격이며, 2~7월의 약 -76% 급락이 그 위험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에스와이스틸텍은 건물을 지을 때 바닥 슬래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데크플레이트(거푸집 겸 구조용 철판)**를 주력으로 만드는 건설자재 기업입니다. 모회사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와이(SY)로, 그룹 차원의 건설·철강 사업 시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6년 들어 층간소음 차음재로 제품을 넓히고,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수요를 겨냥해 수주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 1,198억에서 2025년 974억으로 줄었다가 2026년 대형 건설 수주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입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데크플레이트	건물 바닥 슬래브 시공용 철판 구조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과 구조 보강을 겸함. 더현대광주·서소문빌딩 등 대형 건축 프로젝트에 공급. 주력 매출원.
층간소음 차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자재. 2026년 데크플레이트와 병행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
건설용 철강 가공품	그룹 건설 사업과 연계한 철강 가공·공급.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향 납품.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반기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데크플레이트가 핵심 축이며 차음재는 신규 확대 단계로 매출 기여 미확인.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대형 건설사·시행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더현대광주(현대백화점 계열) 데크플레이트 공사 129억, 11월 삼성물산 서소문빌딩 재개발 94억 등 랜드마크 건축 프로젝트에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이들의 수주는 건설 경기와 대형 프로젝트 착공 시점에 직접 연동되므로, 분기 매출이 수주 인식 시점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룹 모회사 에스와이의 건설·철강 사업과 연계된 내부 거래·공동 수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매출 집중도는 DART 반기보고서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수요는 기대 단계로, 실제 공급계약 공시가 나와야 고객군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는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노스, 윈하이텍** 등 전문 업체와 경쟁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체 철강 가공 설비와 다양한 공법 특허를 보유해 규모·기술 면에서 치열하게 맞붙으며, 건설 경기 둔화기에는 제한된 발주 물량을 두고 단가 경쟁이 심해집니다. 에스와이스틸텍의 상대적 강점은 **모회사 에스와이 그룹의 건설·철강 사업과 묶인 수주 시너지**이고, 약점은 2025년 영업적자 전환(-27억)과 2026년 상반기에도 이어진 적자가 보여주듯 수익성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제품이 범용 건설자재에 가까워 가격 결정력이 낮고 원자재(철강) 가격 변동을 판가에 넘기기 어려운 구조도 공통적인 약점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건축 구조자재 — 철강 원재료에서 건설 현장까지

데크플레이트 산업은 위로는 철강 제조사(원재료)에, 아래로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착공 물량에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에스와이스틸텍은 이 사슬의 **중간(철판 가공·구조자재 제조)**에 위치하며, 철강 가격과 건설 경기라는 양쪽 변수를 모두 받아냅니다.

① 원재료
열연·냉연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

② 구조자재 제조
에스와이스틸텍,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노스, 윈하이텍

›

③ 건설사·시행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형 시행사 — 착공·발주 주체

›

④ 최종 수요
상업시설(백화점), 재개발 빌딩,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공동주택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가격 결정력이 약하다.** 철강은 소수 대형 제철사가 공급하고 판매처는 대형 건설사다. 양쪽 다 에스와이스틸텍보다 크기 때문에 철강값이 올라도 판가에 넘기기 어렵다. 2026년 매출이 늘어도 적자가 커진 구조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2. **수요는 '건설 사이클'이다.** 건축 착공 물량이 늘면 데크플레이트 수요가 커지고, 부동산·건설 경기가 식으면 발주가 끊긴다. 2025년 매출 감소(974억)는 건설 경기 둔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3.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는 '새 수요처'지만 아직 기대 단계다.** 대형 데이터센터·반도체 팹 건설은 구조자재 수요를 키우지만, 에스와이스틸텍이 그 물량을 실제로 수주했다는 공시된 계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가는 기대로 움직이고 실적은 따로 간다.

4. **모회사 에스와이와 주가가 연동된다.** 보도에 따르면 7월 7일 모회사 에스와이 상한가에 동반 급등한 사례처럼, 그룹 수급이 이 종목 주가를 흔든다. 개별 실적과 무관하게 모회사 이벤트가 변수다.
5. **수주 공시가 곧 이익은 아니다.** 129억·94억 같은 공급계약은 매출의 미래 재료이지만, 2026년 상반기 적자가 보여주듯 낮은 마진으로 받으면 외형만 커지고 손익은 나빠질 수 있다. 수주 규모보다 수익성 회복 여부가 핵심이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건설·건축 착공 물량	+	매우 높음	데크플레이트 수요의 근본. 대형 프로젝트 착공 시점이 분기 매출을 좌우
철강(열연·냉연) 가격	−	높음	원가의 대부분. 판가 전가가 어려워 철강값 상승이 곧 마진 압박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	높음(기대)	신규 구조자재 수요처. 단 실제 수주 공시가 나와야 실적으로 연결
모회사 에스와이 주가·수급	±	높음(주가)	그룹 수급에 동조. 7월 모회사 상한가에 동반 급등한 이력(보도)
건설사 단가 인하 압력	−	높음	소수 대형 건설사 발주 구조에서 발주처 협상력이 절대적. 적자의 한 원인
지분 담보·그룹 자금 상황	−	중간	모회사 등이 담보 비율을 26.76%로 확대(보도). 그룹 자금 압박이 변수
층간소음 차음재 신사업	+	낮음(현재)	사업 병행 단계. 매출 기여가 확인되면 재평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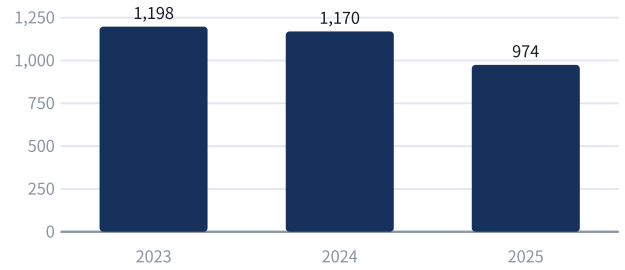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198	146	108
2024	1,170	81	61
2025	974	-2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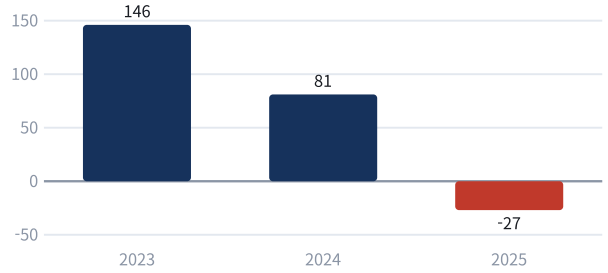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3Q	189	-2	-6
25.4Q	269	-29	-21
26.1Q	175	-6	-7
26.2Q	376	-27	-32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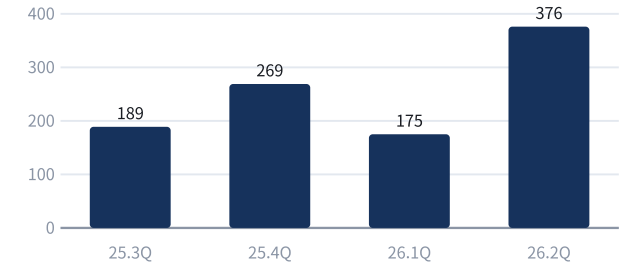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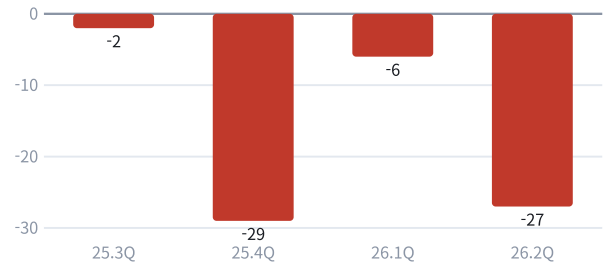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은 2023년을 정점으로 꺾였습니다. 1,198억 → 1,170억 → 974억.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약 200억 줄었고, 영업이익은 146억(2023) → 81억(2024) → -27억(2025)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설 경기 둔화가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갉아먹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12.2%였던 회사가 2025년 -2.75%가 됐다는 것은, **매출이 빠질 때 이익이 더 빠르게 빠지는 고정비 구조**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경고는 2026년 2분기입니다. 매출이 376억으로 분기 최대인데 영업손실 27억, 순손실 32억이 났습니다. 직전 1분기(매출 175억·영업손실 6억)보다 매출이 두 배 넘게 늘었는데 적자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것은 '수주를 받긴 받았는데 남는 게 없는' 저마진 공사가 매출에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현대광주 등 대형 프로젝트가 외형은 키웠지만 손익은 깎아먹은 것인지, 철강값 상승 때문인지, 일회성 비용인지를 반기·분기 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같은 방향인 점은 그나마 단순합니다. 2분기 영업손실 27억, 순손실 32억으로 부호가 일치합니다. 영업 밖에서 추가로 약 5억 손실이 났을 뿐, '영업흑자·순손실 괴리'는 없습니다. 다만 EPS -63원으로 주당 손실이 분기마다 쌓이고 있어, BPS가 1,953원(25.3Q)에서 1,803원(26.2Q)으로 꾸준히 깎이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아직 양호하지만 방향이 나쁩니다. 부채비율은 26.57%(25.4Q)에서 68.77%(26.2Q)로 두 배 넘게 올랐고, 당좌비율은 291%에서 123%로 급락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운전자본(원재료·외상매출)이 늘고 현금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유보율 262%는 과거에 쌓은 자본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자본이 분기마다 손실로 깎이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PBR 1.00배는 '자산만큼의 가격'이라, 더 이상 '싸다'고 보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삼성물산 94억 공급계약 — 대형 건설사 수주

2026년 11월 9일 삼성물산으로부터 서울 서소문빌딩 재개발공사용 데크플레이트 94억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자율공시, 2026.11.09). 국내 최대 건설사와의 계약으로 사업 기반 확대의 신호이며, 2025년 연간 매출 974억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출처 · DART 2026.11.09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6.11.09

더현대광주 129억 데크플레이트 수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더현대광주 데크플레이트 공사 129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2026.07.01). 랜드마크 상업시설 프로젝트로 2026년 2분기 매출 376억(분기 최대)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DART 2026.07.01 / 철강금속신문 2026.07.02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수주 기대 테마

MS·아마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구조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데이터센터·반도체 팹 건설은 대규모 구조자재 수요를 동반하므로, 실제 공급계약으로 이어지면 외형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대 단계로 공시로 확정된 계약은 없습니다.

출처 · 와이드경제 2026.07.07 / MTN 2026.07.07

층간소음 차음재로 사업 다각화

보도에 따르면 데크플레이트에 더해 층간소음 차음재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 수요를 겨냥한 제품으로, 건설 프로젝트 사이클에만 묶인 매출 구조를 분산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수익원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비건뉴스 2026.11.09

비교적 낮은 부채와 자산 수준 가격

부채비율 68.77%, 당좌비율 123.32%로 당장의 지급 능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보율 262%로 과거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고, PBR 1.00배(BPS 1,803원·주가 1,690원)로 자산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수익성이 회복되면 재평가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 분기재무 2026.06 / 2026.11.19 종가 기준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2분기 매출 최대인데 적자 확대 — 저마진 구조

2026년 2분기 매출 376억으로 분기 최대인데 영업손실 27억·순손실 32억이 났습니다. 직전 분기(175억·-6억)보다 매출이 두 배 늘었는데 적자가 커졌습니다. 외형 성장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저마진 수주 구조라는 신호이며, 그 원인(철강값·일회성 비용·낮은 수주 단가)을 분기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출처 · 분기재무 2026.06

52주 최고 4,635원 → 최저 1,110원, 약 -76% 급락 이력

올해 2월 4,635원을 찍었던 주가가 7월 1,110원까지 약 76% 무너졌습니다. 1년 수익률은 여전히 -46.3%입니다. 지금의 반등(11월 데이터센터·삼성물산 수주 테마)도 같은 성격의 테마 수급이며, 2~7월이 그 결말을 이미 한 번 보여줬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02~11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의 6.1배 — 단기 자금 집중

당일 거래량 1,280만 주는 20일 평균의 6.1배, 250일 평균(약 132만 주)의 거의 10배입니다. 거래대금 217.3억은 시가총액 848억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전율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가 주도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며, 테마가 식으면 거래가 급감하고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9

2025년 영업적자 전환, 매출 3년째 감소

매출 1,198억(2023) → 1,170억(2024) → 974억(2025). 영업이익도 146억에서 81억으로, 다시 -27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1·2분기 모두 적자로, 아직 흑자 전환의 신호가 없습니다. 수주 공시는 늘었지만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연간재무 2025 / 분기재무 2026.06

모회사 등 지분 담보 비율 26.76%로 확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에스와이(주) 등이 보유한 에스와이스틸텍 주식 담보 비율을 26.76%로 확대했습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룹 차원의 자금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담보 주식 강제 매도)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데이터투자 2026.10.16

부채비율 급등·당좌비율 급락 — 현금 소진

부채비율이 26.57%(25.4Q)에서 68.77%(26.2Q)로 두 배 넘게 올랐고, 당좌비율은 291%에서 123%로 급락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한 운전자본 부담으로 현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형 성장이 재무 부담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출처 · 분기재무 2025.12~2026.06

데이터센터 수주는 기대일 뿐 공시 미확인

MS·아마존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와 관련된 실제 공급계약 공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대만으로 형성된 가격은 구체적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의 기대감과 공시로 확정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와이드경제 2026.07.07 / DART 공시 교차확인

모회사 수급에 주가가 흔들리는 구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7일 모회사 에스와이 상한가에 동반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개별 실적이 아니라 그룹 수급이 주가를 흔든다는 뜻으로, 모회사 이벤트가 악재로 바뀌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적 기반이 아닌 변동성입니다.

출처 · 컨슈머타임스 2026.07.07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6	분기보고서 (2026.09)	에스와이스틸텍
2026.11.09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에스와이스틸텍
2026.08.14	반기보고서 (2026.06)	에스와이스틸텍
2026.07.01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에스와이스틸텍
2026.05.15	분기보고서 (2026.03)	에스와이스틸텍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에스와이스틸텍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에스와이스틸텍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최근 9개월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수주는 들어오는데 실적은 적자'**라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7월 1일과 11월 9일 두 차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이어졌습니다(계약 금액은 보도에 따르면 각각 129억·94억). 본업의 수주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수주들이 반영된 2026년 상반기 실적은 1분기 -6억, 2분기 -27억으로 적자였고, 특히 2분기는 매출이 분기 최대였는데도 손실이 컸습니다. 여기에 공시 외 정보이지만 10월 모회사 등의 지분 담보 비율 확대(26.76%, 보도) 뉴스가 겹칩니다. **즉 공시 흐름은 '외형은 커지지만 그 외형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고, 그룹은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당기는' 국면**으로 요약됩니다. 수주 공시의 반가움과 손익의 냉정함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더현대광주·삼성물산 수주가 하반기 매출로 본격 인식되며 3분기부터 영업흑자 전환. 2분기 적자가 초기 공사원가 선반영 등 일회성으로 확인되고,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향 신규 공급계약이 실제 공시로 나옴. 이 경우 PBR 1.0배는 재평가 근거를 갖는다. **조건: 흑자 전환과 신규 수주 공시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기본 시나리오

대형 수주로 외형은 유지되나 저마진 구조가 이어져 손익은 소폭 적자 ~BEP 수준에서 횡보. 데이터센터 수주는 기대 단계에 머물고, 주가는 모회사 수급과 건설 테마에 따라 1,300~2,000원 사이에서 크게 출렁임.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2분기 적자가 저마진·철강값 등 반복성 요인으로 확인되고 3분기도 적자 지속. 데이터센터 기대가 공시 부재로 꺼지면서 테마 자금 이탈, 거래량 급감. 모회사 지분 담보 관련 반대매매 우려까지 겹치면 7월 저점(1,110원) 재시험 가능성. **2~7월에 한 번 실제로 일어난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3분기(2026.09)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부와 매출총이익률 — 2분기 적자가 일회성인지 확인 (분기보고서)
2. 2분기 매출 376억의 매출원가·판관비 구성 — 저마진 공사 비중을 반기·분기보고서 손익 주석에서 확인
3.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향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DART)
4. 모회사 에스와이 등의 지분 담보 비율 추가 확대·반대매매 공시 여부 (DART·전자공시)
5. 당좌비율 100% 유지와 부채비율 상승 추세 — 운전자본 부담이 현금을 얼마나 더 갉아먹는지
6. 모회사 에스와이 주가 동향 — 이 종목 주가의 동조 지표

오픈팩트의 결론

대형 건설 수주(더현대광주 129억, 삼성물산 94억)가 이어지며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2026년 2분기 매출이 분기 최대였는데도 적자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이 이 종목의 핵심 모순**입니다. 수주가 곧 이익이 아니라는 저마진 구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턴어라운드'라 부르기 이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635원에서 7월 1,110원으로 약 76% 무너진 경험이 말해주듯, 이 종목의 주가는 실적보다 **건설·데이터센터 테마와 모회사 수급이 정합니다. 외국인이 반등 구간에서도 비중을 줄였고, 모회사가 지분 담보를 확대했다는 보도가 그 경고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